



인문학, 어디로 가고 있는가?

『쓰름-문학의 이름으로』 제9호 발행

문학실험실 펴냄 / 140\*240 / 512쪽 / 값 18,000원 / ISSN 2465-7956

## **“인문학,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시대 지성계를 향해 던지는 역설적인 질문.**

“문학은 다시금 무엇일 수 있으며, 새로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2015년 9월 창간한 반연간 문학전문지 『숲-문학의 이름으로』 통권 9호가 나왔다. 이번 호의 특집은 한국의 지성계와 더불어 통찰해봐야 할 질문, 즉 ‘인문학의 미래’로 꾸며보았다. 열두 분의 필자가 꾸며준 특집이 우리 인문학계에 던지는 화두가, 인문학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특집 : 인문학,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신자유주의 시대의 인문학\_한국 인문학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 김태환 (서울대 독문과 교수)
2. 인간과학의 고고학과 계보학 (1)\_미셸 푸코의 『말과 사물』과 『감시와 처벌』을 중심으로 | 심세광 (철학자)
3. 과학기술의 위기와 인문학의 방향 | 김인환 (고려대 명예교수)
4. 인문학의 미래\_인공지능 시대에 되돌아보는 생각의 의미 | 김상환 (서울대 철학과 교수)
5. 인문학의 얼굴, 그 너머 |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6. 인문학의 황혼, 문학이라는 조짐 | 이소연 (문학평론가)
7. “너 자신이 되라”: 인문학, 진정성, 수행성 | 이수형 (명지대 국문과 교수)

### **특집과 함께 : 현장의 목소리: 인문학적 성찰과 상상력**

1. 나의 예일이자 하버드-두꺼운 책들의 바다는 어디로 가는가? | 김성중 (소설가)
2. 이야기에서 소설로 | 김연경 (소설가, 번역가)
3. 이야기에서 사유로 | 김연수 (소설가)
4. 프로그램으로서의 인문학 | 심보선 (시인)
5. 한국 문학의 젊음 | 이영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장)

“이번 호 특집은 인문학이다.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위기에 빠진 인문학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인문학의 운명에 관한 특집을 기획한 것은 위기 상태가 만성화되면서 인문학의 무력함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와 함께 인문학의 제일 중요한 거점인 대학에서 입지가 사정없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 다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특집의 서설에 해당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인문학」(김태환)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문학이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추적하면서, 인문학의 가치 회복은 인문학의 출발점에 있는 공적 이념으로서의 인문주의 정신을 상기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어지는 글 「인간과학의 고고학과 계보학」(심세광)은 ‘인간’이라는 범주 자체를 문제 삼음으로써 전통적 인문학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가능하게 한 푸코의 사상적 궤적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푸코 자신이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권력 지식의 문제 틀로 이행함에 따라 그의 인간과학도 변화한다는 점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이 글은 편집 분량의 관계로 다음 호에 「인간과학의 계보학」을 분재해 이어 나감을 알려드린다. 「과학기술의 위기와 인문학의 방향」(김인환)은 데리다, 후설, 스티글러, 제아미 등 동서고금의 논의를 가로지르며 인문학의 정신을 과학의 위기와 기술의 위기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밝혀낸다. 다양한 사상을 통해 표명하는 필자의 인문학적 입장은 객관주의가 망각한 정신의 복권, 관조 능력의 재건, 미지의 영토를 향한 두려움 없는 편력으로 요약된다. 「인문학의 미래」(김상환)는 급격한 매체 환경의 변화와 AI 시대의 개막을 인문학의 도전이자 기회로 포착하며 새로운 인문 정신이 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필자는 AI를 디딤돌 삼아 인문학적 사유의 본질에 천착하는바 이때 필자가 선택한 키워드는 ‘비스듬한 것, 굴절, 체계의 횡단 능력, 먼 것과의 관계’와 같은 표현이다. 「인문학의 얼굴 그 너머」(김예란)에서는 전통적인 인문학의 위기 이면에서 새롭게 변창하기 시작한 인문학 산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필자는 들뢰즈의 얼굴론에 의지하여 오늘의 인문학이 얼굴성(이미지화)의 코드에 갇혀 있음을 지적하고 이로부터의 탈주를 제안한다. 한편 「인문학의 황혼, 문학이라는 조짐」(이소연)은 오늘날 전통적 대학 인문학의 몰락과 강화되어가는 시장의 압력과 매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적응하고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인문학의 시도 속에서 위험과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내고자 하는 글이다. 필자는 특히 새로운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학적 글쓰기가 황혼 속의 조짐이 아닐지 조심스러운 진단을 제시한다. 특집의 마지막 글은 「너 자신이 되라’: 인문학, 진정성, 수행성」(이수형)이다. 여기서 필자는 찰스 디킨스에서 이광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 및 인문학 텍스트를 넘나들며 인문학적, 문학적 견지에서 근대적 인간이 감정의 표현과 발화를 통해 진정성의 주체로 형성되어가는 존재임을 드러내며 그것이 오늘의 SNS 문화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실험적인 시와 소설은 물론 특별한 텍스트 실험도 실려...**

성기완, 유계영 시인의 신작 시와 서이제, 이동욱, 한정현 소설가의 신작 단편, 그리고 최규승 시인이 선보인 텍스트 실험은 문학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줄 것이다. 특히 이번 호에는 현재 무용가로 활동 중이기도 한 정나란 씨를 신인 시인으로 추천하면서, 5편의 작품으로 독자와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정나란 씨의 작품이 한눈에 들어온 것은 다변(多辯)과 놀변 사이에서 자신만의 무게중심을 잡으며 상상력을 펼치고 모두는 능력 때문이었다. 다변의 욕망은 다선적인 상상적 흐름으로 거침없이 번져나가지만, 놀변의 침잠과 사유가 여러 방향에서 끝을 찍고 돌아오는 이미지들을 새로운 전체로 구성해나가는 시적 논리를 구성한다”



## 이번 호 필자

기혁 | 시인·문학평론가. 1979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0년 『시인세계』를 통해 시인으로, 2013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비평가로 등단하여, 시집 『모스크바예술극장의 기립 박수』 『소피아 로렌의 시간』을 펴냈다.

김경후 | 시인.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8년 『현대 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그날 말이 돌아오지 않는다』 『열두 겹의 자정』 『오르간, 파이프, 선인장』 『어느 새벽, 나는 리어왕이었지』를 펴냈다.

김나영 | 문학평론가. 1983년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예 창작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였고, 현재 본 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녕 | 문학평론가. 1989년 서울에서 태어나,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01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김상환 | 철학자.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거쳐 프랑스 소르본 파리4대학에서 데카르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체론 시대의 철학』 『니체, 프로이트, 맑스 이후』 등 다수의 저서와 『차이와 반복』 등 다수의 번역서를 펴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성중 | 소설가.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나,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08년 『중앙일보』의 ‘중앙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개그맨』 『국경시장』 『이슬라』 등을 펴냈다.

김연경 | 소설가. 1975년 경상남도 거창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모스크바국립사범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고양이의, 고양이에 의한, 고양이를 위한 소설』 등 3권의 소설집과 『고양이의 이중생활』 등 2권의 장편소설, 그리고 『죄와 벌』 『악령』 등 다수의 번역서를 펴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러시아문학과 소설 창작을 강의하고 있다.

김연수 | 소설가. 1970년 경상북도 김천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작가세계』를 통해 등단하여, 『스무 살』 『나는 유명작가입니다』 등 4권의 소설집과 『꿈뻐이 이상』 『밤은 노래한다』 등 6권의 장편소설, 그리고 『청춘의 문장들』 등 다수의 산문집과 『대성당』 등 다수의 번역서를 펴냈다.

김예란 | 문화비평가.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 학과를 졸업하고 런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 『말의 표정들』을 펴냈으며, 현재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요섭 | 문학평론가. 1988년생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5년 『창비』를 통해 등단했다.

김인환 | 문학평론가. 1946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2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문학과 문학사상』부터 『언어학과 문학』에 이르는 12권의 문학 연구서·비평서와 『에로스와의 문명』 『주역』 등의 번역서를 펴냈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다.

김태환 | 문학평론가.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독문학과 및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대학에서 독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비평집 『푸른 장미를 찾아서』와 문학 이론서 『문학의 질서』 『미로의 구조』를 펴냈고 다수의 독일 문학서·철학서를 번역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솔미 | 소설가. 1985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경영학을 전공했다. 2009년 『자음과모음』을 통해 등단하여, 장편소설 『을』 『백 행을 쓰고 싶다』 『도시의 시간』 『머리부터 천천히』와 단편집 『그럼 무얼 부르지』 『사랑하는 개』 그리고 중편소설 『밤』을 펴냈다.

서이제 | 소설가. 1991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 영화과를 졸업했다. 2018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했다.

성기완 | 시인·뮤지션.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4년 『세계의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쇼핑 갔다 오십니까?』 『ㄹ』 등 4권의 시집과 『모듈』 『노래는 허공에 거는 덧없는 주문』 등 4권의 산문집을 펴냈다. 록밴드 <3호선 버터플라이> 멤버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아샤(AFRO ASIAN SOUND ACT)> 밴드의 리더이자,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심보선 | 시인.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거쳐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슬픔이 없는 십오 초』 『눈앞에 없는 사람』 등 4권의 시집을 펴냈다. 현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심세광 | 철학자.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파리10대학에서 미셸 푸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저서와 『정신의학의 권력』 『주체의 해석학』 등 다

수의 번역서를 펴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대안연구공동체 등에 출강하고 있다.

양순모 | 문학평론가. 1987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01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우찬제 | 문학평론가. 1962년 충청북도 충주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욕망의 시학』에서 『애도의 심연』에 이르는 9권의 비평집 및 문학 이론서를 펴냈다. 현재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계영 | 시인. 1985년 인천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10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온갖 것들의 낮』 『이제는 순수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좀 어지러운가』를 펴냈다.

유희경 | 시인.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와 한국예술종합 학교 연극원 극작과를 졸업했다. 200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시 집 『오늘 아침 단어』 『당신의 자리. 나무로 자라는 방법』 『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을 펴냈다. 현재 시집 전문 서점 '위트 앤 시니컬'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욱 | 소설가. 1978년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났다. 2007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시로, 200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소설로 등단하여, 소설집 『여우의 빛』을 펴냈다.

이소연 | 문학평론가.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비평집 『응시하는 겹눈』을 펴냈다.

이수형 | 문학평론가. 1974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문학, 잉여의 몫』과 문학 연구서 『1960년대 소설 연구』 『이청준과 교환의 서사』를 펴냈다. 현재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영준 | 국문학자. 경상남도 울주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명문화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수영 육필 시고 전집』과 『김수영 전집』 등을 편집해 발간했으며,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영문 문예지 『Azalea: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 Culture』를 2007년 창간해 지금까지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장 겸 교양교육연구소장과 한국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지용 | 문화비평가. 1981년 서울에서 태어나, 단국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SF 장르의 형성』 등의 저서와 『한국 창작 SF의 거의 모든 것』 등의 공저를 펴냈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학술연구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찬 | 문학평론가. 1970년 충청북도 진천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헤르메스의 문장들』 『시/몸의 향연』 등 다수의 비평서와 문학 이론서를 펴냈다. 현재 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계간 파란』과 『서정시학』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나란 | 시인·무용가. 1977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독일 비텐·안넨 발도르프 교육대학을 졸업했다. 2019년 『숲-문학의 이름으로』 이번 호를 통해 정식 등단하는 신인으로, 미등단 상태에서 공동 시집 『흙에 도달하는 것들, 가장 가까운 말로』를 펴낸 바 있다. 현재 무용 공연 활동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최규승 | 시인. 1963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다. 2000년 『서정시학』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무중력 스웨터』 『처럼처럼』 『끝』과 육필 시집 『시간 도둑』을 펴냈다.

한정현 | 소설가. 1985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 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01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장편소설 『줄리아나 도쿄』를 펴냈다.